캄보디아 초등학교서 불교 접목 교육 '인기'

왓 캄펭 초등 1~6학년 628명에
월 1회 명상 · 불교적 윤리 진행
마음에 불교 지혜 넣는게 목표
스님 11명 자원봉사 · 기부 운영

박영빈 객원기자



학교에서 스님들이 진행하는 불교윤리 교육의 모습. 사진출처=더 프놈펜 포스트

캄보디아 제2의 도시인 바탐방. 이곳의 중심부에 위치한 캄메아코르 마을의 초등학교들에서는 초등교육에 불교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캄보디아의 '더 프놈펜 포스트'는 왓 캄펭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불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왓 캄펭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2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불교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납 롬두올 부교장은 "2012년부터 수업이 시작됐다. 현재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진행하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시간씩 진행한다. 현재 이 지역에서 이곳을 포함에 3곳의 학교에서 불교수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수업을 소개했다.

수업의 내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을 근간한 윤리교육이다. 수업에는 기도와 명상을 포함해 불교적인 윤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에서 존경받는 고승인 학 시엥하이 스님이 이끄는 '캄보디아 교육불교(BEC)'에서 시작됐다.

BEC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토운 팔리 스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목표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교의 지혜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리 스님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을 일찍 접해 윤리적인 삶을 영위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이들도 많지만, 다양한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계획을 개척한 것이 현재의 교육불교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팔리 스님은 "학생들에게 규율과 도덕적 나침반을 심어주는 것은 단지 스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 교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역할을 나누어 교사들이 이론적인 윤리를 지도하면,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불교에 내재된 마음의 평화를 소개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은 정교교육과 균형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롬두올 부교장은 스님들의 수업에 대해 "스님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 회복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현재 수업은 11명의 스님들이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스님들의 자원봉사와 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팔리 스님은 "교육에 나설 수 있는 스님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 이미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에 나서지 못하는 스님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보재를 기부하는 것으로 수업을 돕고있다"고 전했다.

불교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바탐방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교육국의 트리 학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통찰력과 교육당국 간의 협력은 청소년들에게 윤리적인 삶의 구조를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업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몽골 방문 "덕행 따라 살아야"

9월 3일, 종교 대표자 회의서
법구경 인용하며 '화합'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3일 몽골에서 열린 종교간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몽골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법구경 등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종교와 관계없이 덕을 쌓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다.

AP통신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9월 3일 불교, 이슬람교, 유대인,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인 등 다양한 종교계 대표자들과 함께 종교 간 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교황 중 몽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몽골 불교의 최고 수장이자 울란바토르 간단 수도원(Gandan Monastery)의 주지인 캄바 노문 칸(Khamba Nomun Khan)도 불교 지도자 대표로 배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신념은 결코 대비되는 게 아니다"라며 "종교 간 대화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겸손과 봉사의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우리는 고대 지혜 학파의 겸손한 계승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부처의 가르침 중 '지혜로운 자는 베푸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한 예수의 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법구경 중 "꽃향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만 퍼지고, 덕행에 따라 사는 이들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꽃향기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덕(德)의 향기는 걸림 없이 온 천지에 퍼진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몽골 불교의 탄압 시기를 언급하며 "몽골이 과거 고통에 대한 기억을 딛고 어두운 상처를 빛의 원천으로, 무의미한 폭력을 삶의 지혜로, 파괴적인 악을 건설적인 선으로 바꾸는데 불교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몽골 불교는 20세기 초 약 11만명의 불교 승려와 약 700개 수도원이 건설될 만큼 번성했으나 1921년 몽골 인민당의 탄압 탓에 많은 수도원이 파괴되고 일부 승려들은 살해되거나 강제로 승복을 벗어야 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인 2일에는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과 만났다. 아울러 3일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스텝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중국을 향해 종교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몽골은 전체 인구 약 340만명 중 60% 이상이 종교를 믿으며 대다수가 불교도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1450명 정도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 소프트 파워 전략에 불교 활용

모디 총리 취임 후 불교 지원 두드러져



부탄을 방문해 스님들과 사진을 찍은 인도 모디총리. 사진출처=E-인터내셔널 릴레이션쉽

인도가 외교정책에서 불교를 소프트 파워의 전략으로 활용하며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국제관계에 대한 논설을 게재하는 'E-인터내셔널 릴레이션쉽'은 인도정부가 소프트 파워, 소프트 밸런싱으로 활용하는 불교에 대해 전했다.

2014년 정권을 잡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책 하에서 인도에서의 불교는 비약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모디 총리는 스스로 '인도식의 불교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국가인 주변국가들과의 유대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주요 분석가들은 이미 모디 총리가 취임초기부터 불교를 인도의 활발한 새 외교의 중심에 두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리는 2015년,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인도정부는 이웃한 불교국가들이 이 성지에서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선언했으며, 같은 달엔 인도가 아시아 전역의 불교 유산을 증진하는데 앞장서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인도정부의 불교지원은 중국이 진행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지정학적 장점을 불교라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는 현재 국제불교연맹(IBC)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제1회 세계 불교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현재 인도정부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원천인 인도 날란다 사원의 전통이 인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날란다 불교 전통'에 대한 다양한 학술대회와 회의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으로 인도불교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날란다 불교 전통의 후예를 자처하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망명중인 상황에서,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산재한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정부 문화부는 2018년 결성된 '인도 히말라야 날란다 불교 전통 협의회(IHCNBT)'의 운영자금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낙시 레키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 불교가 유라시아를 통해 아시아에 퍼진 것을 강조하며 "인도는 이러한 철학, 사상,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원천이었다. 이를 연구하고 부흥시키는 것은 인도의 국가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 대지진에 훼손된 불교 스투파 복원

인도 정부 지원…'공동 문화' 반영



복원된 스투파 앞에서 네팔 주재 인도대사와 랄릿푸르시장.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훼손된 5세기 불교 스투파가 복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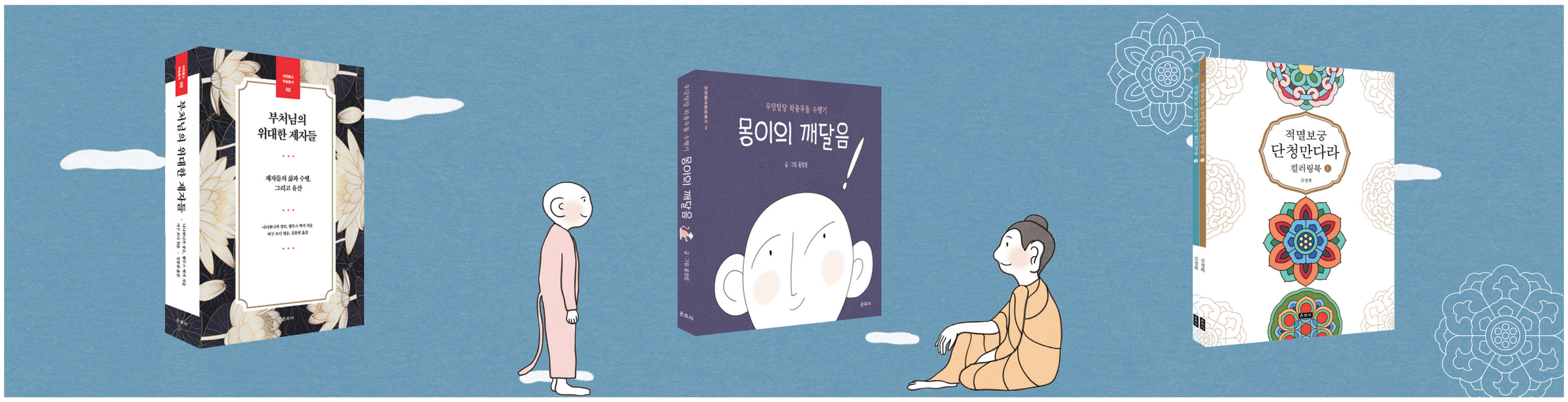
9월 3일(현지시간) 데칸헤럴드(deccanherald)에 따르면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진 랄릿푸르(Lalitpur) 지역에 위치한 5세기 불교 스투파가 인도의 지원으로 재건돼 마침내 대중에 공개됐다.

네팔 주재 인도 대사 나빈 스리바스타바(Naveen Srivastava)는 "여러 분야에서 인도와 네팔 간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도와 네팔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문화적 유사성과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과거에도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네팔과 협력해 왔으며 이는 '우호관계의 힘인 우리 공동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랄릿푸르 지역 시장 치리 바두 마하르잔은 "인도가 자신의 지역과 네팔 전역에서 문화유산 보존 계획을 진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했다.

인도 정부는 슈리 나피찬드라 마하비하르 외에도 2015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랄릿푸르의 유적지 6곳을 재건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서쪽 80km 지점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약 9000명이 사망하고 2만 1000명 이상이 부상 당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음을 증명하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을 통해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냐나뽀니까 장로, 헬무스 헥커 지음/김충현 옮김/신국판/728쪽/값 40,000원

수행 입문자를 위한 명상 카툰!

몽이의 깨달음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좌충우돌 몽이의 생각과 성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정운 글, 그림/사륙배판 변형/236쪽/값 17,000원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